

모든 성인의 통공¹⁾

신성근 신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고백한 다음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성인의 통공’은 성인들이 서로 친교를 나눈다는 말이다. 지상 교회는 천상 교회를 향하여 순례하고 있는 친교 공동체이다. 곧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루는 친교 공동체이며, 모든 성도의 친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친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는 성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누며 친교를 이룬다.

그러므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말은 ‘거룩한 것들을 공유’하는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이다. 즉 거룩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인 성도들이 거룩함을 나누는 친교이다.

1. 거룩한 영적 자산의 공유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교우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이들은 먼저 신앙을 공유하였다. 교우들의 신앙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교회의 신앙이며, 나눔으로써 풍부해지는 생명의 보화이다.

이 신앙의 공유는 거룩한 성사의 공유를 통해서 더욱 풍부함을 지닌다. 모든 성사의 효과는 믿는 이들을 하나로 일치시킨다. 성사들, 특히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과 같은 세례성사는 모두를 서로 묶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하는 거룩한 끈과 같기 때문이다. 성사는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해 줌으로, 모든 성사는 친교의 성사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친교를 완성하는 성사는 바로 성체성사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교회가 거행하는 거룩한 성사의 친교 안에서, 모든 계층의 교우들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주신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사로 친교를 이루는 교우들의 공동체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사도 4,32 참조).

초대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이루며 하나가 된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사랑으로 실천하였다. 즉 사랑을 공유한 것이다.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로마 14,7).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1코린 12,26-27).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1코린 13,5). 우리가 사랑으로 한 가장 작은 행위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바탕으로 모든 산 이와 죽은 이의 연대를 이룬다.

2.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의 친교

주님께서 당신 위엄을 갖추시고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때까지, 또 죽음을 물

1) 이 단원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946-959항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하였습니다.

리치시고 모든 것을 당신께 굴복시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지상에서 나그네길을 걷는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삶을 마치고 정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또 어떤 이는 바로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뵈옵는 영광을 누린다.²⁾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같은 사랑 안에서 참으로 여러 단계와 방법으로 친교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 하느님께 같은 목소리로 영광의 찬미가를 노래한다. 모든 교우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서로 결합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 나그네들의 결합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으며, 더욱이 교회의 변함없는 신앙에 따르면, 영신적 선익의 교류로 더욱 튼튼해진다.”³⁾

1) 성인들의 전구(轉求)

천상에 있는 성인들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결합하여 있으므로, 그들은 온 교회를 성덕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강화한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께 교회를 위하여 전구하고 있다. 이들은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형제적 배려로 우리의 연약함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⁴⁾

2) 성인들과 이루는 친교

우리가 천상에 있는 성인들을 기억하며 공경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표양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아 형제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욱 강한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상의 나그네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처럼, 성인들과 이루는 통공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해 준다. 이는 온갖 은총과 하느님 백성의 생명 자체가 그 원천이며 머리아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⁵⁾

3) 죽은 이들과 이루는 친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가 이루는 친교 속에 나그네길에 있는 교회는,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커다란 신심으로 소중하게 간직하여 왔다. 그리고 교회는 죽은 이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유익한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왔다.⁶⁾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다.

2) 교회 헌장, 49항 참조.

3) 교회 헌장, 49항 참조.

4) 교회 헌장, 49항 참조.

5) 교회 헌장, 50항 참조.

6) 교회 헌장, 50항 참조.

4) 하느님의 한 가족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찬미가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류할 때 우리는 교회의 근본 소명에 부응하는 것이다.⁷⁾

교회는 답합니다⁸⁾

교회는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완전하고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이 완성된 하느님 백성이 되기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나그넷길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일치를 이루고 거룩함으로 변화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청한다.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인 모든 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를 믿는다. 우리는 기도와 희생, 특히 성찬례로 서로 일치한다. “빵은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 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우리는 천상의 성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한다. 천상에 있는 성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한다. 또한 천상의 성인들은 아직 하느님 나라에 들지 못한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일치하여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다.

7) 교회 헌장, 51항 참조.

8)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107쪽 참조.